

규합총서에 나타난 주택관리의 내용분석

Analysis of Housing Management as Shown in the Collection of "Kyuhab"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朱 英 愛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Young Ae, Ju

규합총서는 조선후기에 빙허각 이씨가 저술한 가정학의 총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집안의 딸과 며느리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부녀자들을 위한 교육서라고도 할 수 있으며 가정 생활 백과 사전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규합총서를 통해본 의생활, 식생활관리는 간간히 연구되어 왔으나 주생활관리의 내용은 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책의 주택관리의 내용을 찾아 분석하고 논의하여 보았다. 그 결과, 첫째 당시의 주택관리에는 자연재를 활용한 바를 볼 수 있었고, 둘째 그 내용은 저자가 직접 행해 보고 유용한 바를 수록한 상세한 가르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째는 주택관리내용이 여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적인 것만을 다루고 있었으며, 네째는 조선 후기의 실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실천적 가르침을 강조한 바를 알 수 있었다.

I. 서 론

규합총서는 가정실학의 대표적인 서적으로 조선조 후기 영조시대에 빙허각 이씨에 의해 쓰여진 책이다. 이는 가정생활의 대백과사전과 같은 것으로 의식주 생활을 비롯하여 병다스리기, 시골살림의 즐거움등이 실려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도 귀중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규합총서의 내용중 식생활부분이나 의생활부분에서의 내용분석이나 그 의미를 논의한 연구들은 간간히 진행되어 왔으나 주생활 부분에서의 분석은 미진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주생활 측면에서 규합총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가정학에 있어서는 주거관리란 주택의 유지 보수 즉 house keeping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주택관리로써 주거관리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며 현대사회에서는 주거관리의 개념이 보다 광범위해졌다고 볼 수 있다(신경주·안옥희, 1995, p.7). 주거관리에는 일상적인 청소 및 손질, 손상되거나 부식된 부분의 수선, 개축 등이 포함되는 주택관리와 주택시장에 참가하여 선택 및 구매를 하는 행위, 주택내에서 일어나는 가족간 상호행동의 관리 등까지의 경영관리나 생활관리가 모두 포함된다(윤복자·지 순, 1992, pp.224-232).

위와같은 주택관리나 주거관리의 개념에 따라 볼 때 규합총서에 제시되고 있는 주거관리는 주로 주택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생활사적 측면에서 선조들의 삶의 양식속에서 지켜왔던 바들을 고찰하는 것은 전통생활문화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도모하며, 나아가 현대의 생활속에도 면면히 유지되는 문화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계승될 만한 가치로운 바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규합총서에 나타난 주택관리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나 특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써 조선조말 집안에서 여성들이 담당해오던 주택관리의 실상을 알아보고,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주택관리의 주된 의식은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여 조선조 후기의 가정생활상 연구에 일조하고자 하며, 나아가 주택관리를 위해 요구되었던 당시의 바람직한 주택관리의식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본 고의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내용분석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규합총서의 저술시기 및 저자의 저술의도 등을 기술했으며 이 문헌에 나타난 주생활관리측면을 내용별로 고찰하고 현대적 견지에서 그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고 논의 하였다.

II. 규합총서의 배경적 특성

규합총서는 杏亭 서유분의 아내 憑虛閣 李氏(영조 35년~순조24년, 1759~1824년)가 1809년(순조 9년)에 엮은 가정살림에 관한 내용의 책이다. 빙허각 이씨의 친정아버지는 평양감사를 지낸 李昌壽이며 어머니는 柳僖의 고모다. 태교신기를 지은 유희의 어머니는 이씨의 외숙모다. 이 규합총서는 3부 12책으로 빙허각 전서의 제1부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책은 언제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는채 필사본 또는 목판본으로 전해져 내려 오다가 1939년에 <빙허각전서>가 발견되면서 이 책의 제1부작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현재 목판본 1책, 총 29장으로된 가람문고본과 필사본 2권 1책으로 된 부인필지, 1권 1책 총 68장으로 된 국립중앙도서관본, 필사본 6권으로 된 정양완 소장본 등이 전해진다. 본 고에서는 정양완 소장본을 중심으로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는 저자가 필사본의 내

용을 자세히 살펴 읊고 주를 달아 1984년 보진재 출판사를 통해 저술 발표한 책이다. 조선조 후기 여성의 교육을 위해 저술되었던 책들은 주로 개인의 수신과 덕성등 생활규범을 강조한 반면(사소절, 고암가훈, 여사서 등)규합총서는 여성이 담당할 의식주 생활관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조선시대 후기의 기타 여성 관련 생활서적과는 차이가 있다.

규합총서라는 책이름은 笠澤叢書에서 본 따서 지었다. 즉 <여러책에서 뽑아 각 門目으로 나누었는데 그것이 시골 살림살이에서는 긴요치 않은게 없다. 특히 초목, 새, 짐승의 성미를 더 꼼꼼히 알고 있다. 내가 그 책이름을 규합총서라 이름지었다...>(정양완, 1984, p.13)라고 한 바를 보면 알 수 있다.

규합총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李氏 자신이 그의 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토대로 알 수 있다. <...이에 모든것을 취하여 그 중요한 말을 가려적고, 혹 따로 자기 의견을 덧붙여 類聚 다섯권을 만드니 첫째는 酒食議니, 무릇 장 담그기, 술 빚기, 밥, 떡, 과일은 갖 반찬이 갖추지 않은 것이 없고, 둘째는 縫任則이니, 심의, 조복 마르고 짓는 척도와 아울러 물들이기 길쌈 수놓기 누에치는 일이며, 補器 點燈 모든 雜方을 붙이고, 셋째는 山家樂이니 무릇 밭을 갈고 다스리며 꽃과 대를 심는 것으로 부터 그 아래로 馬牛를 치며 닭을 기르는데 미쳐 시골살림의 대강을 갖추고 네째는 靑囊訣이니, 胎教 아이기르는 요령과 삼 가르기 求急하는 方文하며 胎殺所在와 약물금기를 적고, 다섯째는 術數略이니, 鎮宅淨居하는 법과 陰陽拘忌하는 術을 달어 符呪逐魔하는 일체 俗方에 이르렀으니 이로써 뜻밖의 患을 방지하고 무속에 빠짐을 멀리하게 한 바다> 하였다.

또한 <...이 모두가 養生하는 先務요 治家하는 要法이라 진실로 日月에 켜칠 못할 것이요, 부녀의 마땅히 강구할 바이라 드디어 이를 序를 하여 집안의 딸 며느리들에게 준다...>하였다.

이 책은 저술시 여러 문헌을 참고하였고, 그 체제는 결코 추상적인 글이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자세하고 명백하며 실용성이 있게 엮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해 본것, 미처 못해 본 것을 밝혔고, 때로는 비록 옛글에는 있으나 일용에 꼭 필요치 않은 것은 그 方文을 적지 않아 조선조 말기에 가정생활상을 짐작하

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이희승은 규합총서를 일컬어 이것이야말로 당시 가정에서 부녀들이 알아야하고 행하여야 하며 지켜야 할 생활전서로서 현대의 소위 가정백과 사전에 해당되는 述作(정양완, 1984, p.3) 이라 하였다. 이 책은 필사본으로 전해오는 이런 종류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으로 우리의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은 자못 컸다. <빙허각전서>는 광복전에 발간예정이었다가 6.25남침 등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낙절되었다.

규합총서가 쓰여진 시점은 조선후기로 실학이 융성하여 새로운 민족사상이 고취되고 문예부흥의 기운이 농후하였으므로 문화의 정화를 재현함은 물론 사상계가 다이다체한 면을 갖게 된 때이다(윤장섭, 1988, p.202). 따라서 규합총서는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단지 책이 쓰여진 시점이었다는 이유외에도 빙허각 이씨의 시택은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가문이었다는 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규합총서의 본문은 실학서적으로 유명한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임원십육지> 등을 인용한 바가 많다. 그러므로 규합총서는 실학서적의 성격이 대부분 그러하듯 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실용적 가르침을 많이 강조한 실학적 차원에서 기술된 가정학총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III. 규합총서에 나타난 주택관리 내용분석 및 논의

1. 내용분석

규합총서의 5가지 부분 酒食議 縫任則 山家樂 靑囊訣 術數略 중에 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은 주로 縫任則에 제시되어 있고 그것은 크게 분류하자면 물품관리 방법으로 '보배로운 그릇붙이' '格物' '방구들 놓는 법' '도배방법' '불 안사위게 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재정리 분석하면 그릇관리, 조명(불)관리, 주택관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그릇관리

그릇관리는 '보배로운 그릇붙이', '古銅器 法'을

살펴볼 수 있다. 집안의 물품관리는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과 그 물품 자체의 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규합총서에는 가정의 기물로 그릇을 보관 관리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다.

<보배로운 그릇붙이>는 縫任則 내용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가정에서 소중히 다루었어야 할 그릇을 제모습대로 온전히 간수하기 위한 방법이 상세히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구리 주석 그릇에 푸른 녹슨데 초를 발라 밤 재워 닦으면 지고

구리그릇은 풀무에서 섞여 나는 붉은 쇠가루로 닦으면 빛이 나고

놋 주석그릇은 괴승아(팽이밥)로 닦으면 은빛 같고

은그릇에 검은 글자로 쓰려면 봉사 일전 석웅 황가루 오피문 담반 오피문 유황 서돈을 가루로 하여 풀에 개어 쓰면 지지 않고

수정그릇에 먹으로 쓰고 작설 달인 물에 담가 하룻밤에 재우면 지지 않고

유리그릇은 장을 끓여 씻으면 때가 지고

상아가 오래되어 누르거든 두부 찌꺼기에 담가 문지르면 도로 희여지고

그릇이 불타서 검은 것은 불에 다시 쬐어 문질러 모래와 돌 없는 땅에 묻었다가 내면 옛날과 같아진다.

사그릇이 절로 깨어져 아래위가 절로 마치 같이 떨어진 것이 이른바 밑없는 그릇 무저완이니 대길하야. 그 깨어진 옷쪽에는 길한 덕담을 써 두고, 그 가운데는 동넛벽에 달고 성서라 일컬으면, 삼년 안에 크게 부귀해진다고 한다.

사그릇 깨어진 것을 달걀 흰자위에 백반가루를 섞어 붙이면 좋고, 깨어진 사기를 먼저 불에 쬐고 달걀 흰자위에 석회, 대왕풀가루를 섞어 붙인 후, 노끈으로 동여 불에 쬐어 말리면 뜻대로 쓰되 다만 닭국 담기를 꺼린다.

파를 땅에 심은채 두고, 그 잎 뾰족한 부리를 문질르고, 대가리 흰 지렁이를 넣어 끝을 매어 봉하여 두라. 하룻밤 뒤에는 다 녹이 물이 되었을 것이니 그 즙으로 사그릇, 질그릇을 다 붙인다.

밀가루를 고운 수건에 쳐서 생웅 맑은 것과 합

하여 깨어진 벼룻돌과 질그릇을 다 붙인다.

독그릇(도째그릇)불이 깨어진데 풀무의 쇠뿔을 초에 개어 막으면 좋고 토란을 반은 설고 반은 익혀 꽤 문지르면 새지 않는다.

독과 항아리가 깨어져 새는데 먼저 대비로 정히 쓸고, 뜨거운 햇볕에 십분쯤 말리고 숯불을 피워 위에 놓아 그릇 몸이 끓은 후에 좋은 역청가루(역청이란 천연으로 나는 고체 반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탄화 수소화합물이다)를 새는데 놓아라. 녹아 죽이 흘러 틈과 안에 가득하도록 다시 숯불로 약간 짝어 바르면 다시는 영 새지 않는다.

모양 좋은 질그릇에 먹칠을 진히 하고 아교에 분을 개어 포도를 치거나 풀이나 꽃을 그리고, 혹 하엽이나 야청을 칠하고 채화를 하여 들기름에 무명석과 백반을 조금 넣어 몽긋한 숯불로 끓여 동유를 만들어 위에 고루 고루 칠하여 말려 걸으면 화류로는 왜물(일본것)같고, 매우 빛나고 폼스럽다.

낮은 소반 칠 벗은 것을 속새로 정히 닦고 먹칠을 진하게 하여 이 기름을 두어번 먹여 마른 후에 쓰면 빛나고 윤지기 옷칠 같고 벗겨지지 않는다.

큰 장독 뚜껑이 맞잡지 않거든 큰 샷갓을 만들어 밑에 형질으로 단단히 바르고 위를 종이로 바른 후 주토나 먹칠을 하여 굳게 걸여 덮으면 비 새지 않고 깨어지는 폐 없으며, 마주 가볍고 쓰기에 편하다.

나무그릇에 다목(소방이라고 하여 붉은색 염료로 쓰임. 옛부터 염료식물로 많이 가꾸었음.)과 검금(검정물감의 매염제로 씬)을 같이 달여 칠하면 화류 같다.

이에 이어 <고동기 만드는 법 [古銅器法]>도 제시되어 있다.

수은과 잡석가루는 거울을 닦는 약이니 새로 만든 구리그릇 위에 고루 고루 올리고, 붓사가루를 곱게 만들어 초에 섞어 붓으로 고르게 하여 바른 후 급히 새로 길은 물에 잠그면 납다색이 될것이니 다시 칠하여 또 새로 길은 물에 급급히 잠그면 칠색이 된다. 만일 물에 잠그기를 더디 하면 빛이 변하고, 물에 잠그지 않으면 순연한 비취색이니 세 가지를 다 고운 새 배로 문질러 아른아른하게 하면 고동기와 같이 분번치 못한다. 그러나 고동기는 두드려 보면 소리가 가늘고 맑으며, 새 구리그릇은 소리가 크고 탁하니

능히 아는 이에게는 속일 수 없다. 고동기는 오래 땅에 묻혀 흠기운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꽃을 기르면 꽃빛이 선명하고 가지 위에 핀 것 같고, 떨어지기를 더디하고, 꽃진 뒤에도 열매가 맏히니 질그릇이 또 흠에 들어 천년후는 역시 그렇다 한다.

金畫를 磁碗에 하려면 마늘즙에 金鈔를 섞어 그런 후, 다시 불에 넣으면 영영 떨어지지 않는다.

옥그릇에 석류 껍질 즙으로 金, 彩中에 개어 그런 죽 물에 씻어도 지지 않는다.

흰 사그릇에 지렁이 죽에 채색을 개어 그림 그리면 지지 않는다. 回回靑은 흑 이르기를 回回國에서 사람뻘로 만든 것이라 하니, 그렇다면 祭器에 글자 놓는 것이 불결함에 가깝다.

이상과 같이 구리 주석그릇, 은그릇, 놋주석그릇, 놋그릇, 수정그릇, 유리그릇, 사그릇, 질그릇, 독그릇, 나무그릇 등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는 이와 관련된 작업이 사회화되다 시피 하였으나 가내 생산물이 많고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했던 당시에는 가내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로써 강조되었던 바다.

2) 조명(불)관리

불관리는 불씨를 오래유지하여, 난방 취사 조명을 하기 위해 중시되었던 활동등이다.

격물에서는 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몇가지 나타나 있다. 규합총서에는 ‘格勿’, ‘불안사위게 하는 법’ 등으로 나와있다. 주거의 역사에서 볼때 원시시대 주거로부터 주택내에 노지가 발견(이경희 외, 1993)되어 왔고 이는 취사 조명 난방의 중요한 구실을 해왔음을 지적해 왔다. 특히 전기나 기타 에너지원의 활용이 미흡했던 전래 주거에서는 불을 만들고, 오래도록 유지관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흑태양법, 풍전촉법, 만리촉법, 구점촉법, 성촉방, 구점등유법 등인데, 여기서는 불이 급히 필요하다거나 또는 바람이 불때에도 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불을 오래도록 켜 놓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여러가지 실예를 들어 기록해 놓았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흑태양법——위 구공 집에서 난 법이니, 정한 숯을 곱게 갈아 쇠가루와 쌀풀에 화합하여 쇠가루에 오칠십차를 짓쫄어 판에 물형을 사겨 거기 막아 그

늘에 말려 화로 속에 묻은 죽 불이 피어 수십 일을 간다.

밤중에 급히 불을 이루려면 나무조각에 묻힌 유황이 신기한 고로 인광로라 하고, 또한 화촌이라 부른다.

풍전촉법——乾漆 海金砂 초석 유황 各一錢 검은팔가루 역청 황납 각 이냥 먼저 역청을 끓여 밀과 녹인 후, 다른 재료를 섞어 얇은 베로 심지를 하면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안 꺼진다.

만리촉법——미음들레 주염꽃 송화 느티꽃 각 일전 밀한근을 함께 두어 솥을 끓여 티가 뜨거든 백급 이전 넣어 붉은 기운이 든 후에 불을 물려 영긴 뒤 초를 만들면 만리를 켜고 갈 수 있다고 한다.

구점촉법——황납 송지(송진을 말함) 괴화(회화나무꽃, 살충제로도 쓰임) 각일근 속돌 사냥을 함께 끓여 등심포로 심을 하면 하룻밤낮에 다만 한치가 닳는다.

성촉방——황밀 일근 송지 일근 속돌 팔냥 백교향(단풍나무의 진을 말함) 이냥 괴각자(회나무 잎을 말함) 일근을 한데 끓여 녹거든, 큰 대롱에 부어 만들어 심을 쫓지 말고 심지를 끝에만 붙여 켜면 하룻밤에 겨우 한치가 닳는다.

구등점유법——부평초 원지 황단(납과 석류황을 끓여 합하여 만든 것) 합분 각일냥씩 곱게 갈아 두고, 기름 한냥에 약 한돈씩 넣어 켜면 한달을 켤다.

짐승의 기름과 [산초 수유] 피마주 기름이 다 눈에 해롭다. 심지에 기름을 묻혀 등잔에 먼저 [문혀] 놓고 기름이 삼분의 이가 되거든 물을 삼분의 일만 붓고 기름을 치고 소금을 조금 넣으면 기름이 물위에 떠 닳기를 더디 하고, 또 불이 밝으니 비록 들기름이라도 이 법을 하고 생각을 등잔가에 분지르면 내외 그으름이 없다.

무우나 늙은 외나 속을 파고 쇠기름을 붓고 불을 켜 기름이 조는대로 거죽 무우를 칼로 도려 내면 더디 닳는다.

입춘 하루 전에 등심을 물에 잠갔다가 말려 여름 등잔 심지를 하면 날짐승이 오지 못하고, 다목물에 등심을 넣어 말리어 심을 하면 닳지 않고, 이월 초 이틀이나 청명날 냉이 줄기를 말 않고 캐어 그늘에 말려 심도 두개를 하면 부나비, 하루사리가 들지 못

한다.

해바라기 줄기로 해를 매어 불을 켜면 거센 바람, 큰 비에도 꺼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은 당시 주택의 조명방법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격물에 이어 불 안 사위게 하는 법이라 하여 불씨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불의 점화가 쉽지 않았던 당시에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었다.

불 안 사위게 하는 법[留宿火法]——숯 한근 쇠가루 한근을 반반 섞어 가루 만들어 생연잎 반근 짓찧어 찹쌀가루와 한데 섞어 마음대로 각색 모양을 만들어 벌에 말려서 피우면 재에 묻지 않아도 사흘이 되어도 사위지 않는다.

요화나무를 살라 그 재에 숯을 묻으면 오래 사위지 않는 고로 여뀌꽃을 또한 화탄무초라 이른다.

큰 호도 하나를 불에 넣어 반만 타거든 더운 재에 묻으면 새 되어도 사위지 않는다.

生藥葉——규화 잎을 찢어 숯가루에 섞어 떡처럼 만들어 벌에 말려 향을 피우면 날포 되어도 꺼지지 않는다.

소나무 껍질 위에 푸른 옷 이름은 낭태니 가루로 만들어 맑은 물에 환을 지어 말려 향에 섞어 피우면 그 니가 모여 등그러 흩어지지 않고, 빛이 푸르고 희어 가히 사랑스러운 고로 이름지어 애남향이라 부른다.

불을 한번 피웠으면 가급적 불씨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는 방법으로 숯, 생연잎, 찹쌀가루, 호도, 규화잎 등 다양한 자연재료를 활용해 왔음을 볼 수 있다. 당시에 여성이 제한적으로 담당했던 주택관리 내용 중에서 불씨를 유지해 나가는 일은 여성이 해야 할 중요한 소임이 되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가르칠 것을 중심으로 저술된 규합총서의 내용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때 그렇게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불씨의 유지는 난방이나 조명 취사 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에 여성의 주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전통민속마을인 고성오봉리에서는 불씨를 몇대째 이어 지켜가고 있는 가정도 있다. 이는 전기와 각종 재료를 이용한 조명, 난방, 취사가 가능한 오늘날에도 여성들이 주생활관

리의 일부분으로써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바를 보여 주는 실례라 하겠다.

3) 주택관리

방구들을 놓는 방법에는 방이 썩지 않고 방바닥이 고르게 되도록하여 방바닥에 기름을 먹이는 요령까지 실려 있다. 이와같은 내용이 규합총서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택관리도 여성의 일이 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사대부가 여성이 자기 스스로 행한 일은 아니었다라도 아랫사람을 시켜 시행토록 했고 실제로 자신이 수행자가 아니어도 그 방법을 익혀 두는 것은 아랫사람 다스리는 지혜이기도 했을 것이다. 방 구들 놓는 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 구들돌 놓을 적에 회를 발라 고래를 싸면 썩지 않고 방이 유난히 더우니, 이는 회가 불을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기 오르지 못해서 그렇다(사실은 석회에 단열, 내습성이 있기 때문).

방고래 밑을 아랫목은 사람이 서게 깊이 하고, 차차 높여야 한다. 그러면 불꽃은 위로 타 오르기 때문에 잘 들여 더웁다.

돌을 들쭉날쭉하지 않게 다듬어 고래를 싸지 말고, 돌로 기둥을 세우고, 돌 위에 큰 벽돌을 방 맞추어 이를 맞게 구어 거어 놓고 회로 틈을 바르면 섭방이라 하는데, 십년이라도 꺼지는 일이 없고 옷목까지 고루고루 덩다.

방바닥에 새벽 말고 흙만 고르게 칠하여 마르거든, 은행잎 막 무성할 때 여러 섬을 따, 큰 절구에 짓뭉어 줄기를 가려내고 잡것 없이 하여 연하고 매끄럽게 하여 방바닥 위에 한 치 높이를 깔고 [다만] 단단히 고르게 편 후, 위를 새벽질하듯 반반히 하고 불 때어 결우면 빛은 누르고 푸르며 미끄럽고 단단하기 장판보다 낫고 [여러 십년이 되어도 헤어지 않고] 틈이 없어 영영 상하지 않는다.

또 한 방법은 소나무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곱게 쳐라. 수수 가루로 된 풀을 쭈어 솔가루에 섞어 방바닥에 [두껍게 바르고 들기름을 마르거든 위에 흙백 발라 불을 많이 때어] 깔고 결우기를 은행법대로 하면 호박색이 되고 단단하다.

우리나라 온돌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고려도경] 온로조나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이인로의 동문선

공주동정기 등에는 주택에 온돌구조가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역사가 오래된 온돌이 아직까지 고유의 채난방식으로 유지되어 오는 것은 주택구조와 주생활양식이 점차 서구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 장점과 함께 선인들의 지혜스러움이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규합총서가 쓰여진 조선시대 흙돌을 위한 방구들 놓는 방법은 보편화된 주택관리였을 것이다.

한편 방을 도배한 후의 관리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이르고 있다.

방을 도배한 후, 우뭇가사리를 고아 종이 위에 고루고루 정히 칠하면 빛이 모면지 같고 때 묻은 후 씻으면 새롭기 분판같다.

도배는 종이를 흘겹으로 바르고 마는 수도 있지만, 보통 몇겹을 바르는데 종지와 바르는 방식에 따라 불투명하게도 되고 투명하게도 된다(신영훈, 1982, p.418). 이렇게 도배를 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명기된 것은 조선조에 이르러서나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벽체에 장막을 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된다. 방바닥에 자리를 깔고 살던 시절에는 도배가 어려웠고, 벽체에는 휘장을 내려 쳤으며 발을 늘이듯 겨울에는 장막을 늘여놓았다. 방장이라 부르는 것이 옛부터 있어 온 것이며 고구려 고분벽화, [삼국사기] [고려도경] 등의 기록을 보더라도 삼국시대, 고려, 조선 초 까지도 대부분 고급주택에서는 겨울철에 장막을 치는 것은 필수적(신영훈, 1982, p.417)이었다고 한다.

2. 논 의

규합총서에 나타난 주택관리 내용을 보면, 당시의 주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상의 특징적인 意識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주택관리의 특징은 자연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릇을 보관 관리하는데 사용했던 약재나 물질은 자연에서 얻은 것을 일단의 원리에 맞게 배합하고 가열 건조 하는 등 처리하여 이용되었다.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이와같은 원리에 따른 약재나 물질이 화학약품의 처리를 통해 생산되고 활용되고 있어 과거의 방법이 가정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날 환경오염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는 이러한 주택의 관리에서부터 자연재를 활용했던 과거의 삶의 방식이 퇴색되면서 반작용으로 불러 일으킨 결과가 아닌가 한다. 한편 당시에는 주택관리에 자연재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정도로 산업화가 미진한 상태였으므로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연재를 활용한 당시의 관리방법은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당시인들의 공통된 생활양식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책에 기존의 선행문헌들에서 제시되었던 바를 인용하여 기록한 바를 보면 규합총서가 비록 조선조 후기에 쓰여진 책이나 조선 초 중기의 생활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이렇듯 주택관리에서 자연재를 활용하고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살려왔던 자연순응의 자세는 역사적으로도 오랜 축적된 삶의 양식이므로 그 뜻은 오늘날에도 되새겨 볼만한 바로 사료된다.

둘째 규합총서의 주택관리 내용은 실용적인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저자 빙허각 이씨는 물론 선행서적을 참고하여 규합총서를 집필하는데 활용하였으나 막연히 인용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본문에서도 고찰하였듯이

[물류상감과 더불어 잡자가 허탄함이 많아 믿음직스럽지 못하나, 모든 책을 그대로 다 믿는다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되, 혹시험하여 보니 실로 옳은 것도 있어 요긴함이 없지 않기에 취하여 썼다.]

이를 보면 저자 스스로 관리방법을 실행보고 그것이 매우 효과가 있었으므로 제안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책에 쓰여진대로 실제로 행해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이며,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째 규합총서의 주택관리내용은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관리는 집안의 정리정돈 청소를 비롯 물품의 관리, 수납, 주택 안전을 위한 점검까지도 포함되는 것인데 규합총서에 나타나 있는 주택관리는 기물의 관리방법, 방구들놓기, 도배후 관리, 불씨유지하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주로 가내에서 여성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관리내용을 중심으로 수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남성들은 농사나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관리활동에 임해왔다. 따라서 규합총서에서는 남성들의 주택관리 내용은 대부분 삼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지붕이나 벽체의 보수, 개축등의 내용은 중요한 주택관리 내용이었을지라도 규합총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혹시 더 상세한 주택관리내용이 낙질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주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진 까닭은 저자가 여성이었다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가정에서 여성이 해야할 바는 四德, 즉 부덕, 부언, 부용, 부공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부공은 여성으로 해야 할 마땅한 소임으로써 바느질과 음식만들기가 그 주된 내용이었다(이영미, 1989; 손직수, 1982). 따라서 주생활과 관련된 관리내용은 반드시 여성의 소임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탓도 기인한 것 같다. 저자가 스스로 가정에서 담당해야 할 여성의 일로 여겨왔던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에게 요구 했던 일들을 중심으로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중 꼭 필요한 것들을 수록하여 여성들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주려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주택관리의 내용이 제한적인 것은 일상적이고 쉽게 행하던 바는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규합총서의 의생활 관련 내용을 보더라도 치마, 저고리 등의 기본적인 옷차림을 짓는 방법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심의, 조복 등 예복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책의 내용이 대부분 일상성이 있게 저술되므로 아마도 주택관리에서도 일상적인 청소나 간단한 수선 등의 내용은 삼입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집안에서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일, 그리고 일상적일지라도 그 내용이 매우 중요했던 것들을 선별하여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네째 규합총서는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책으로 이책의 주택관리의 내용은 가정에서 여성에게도 당시 실학의 실천적 가르침을 일깨워준 바라고 할 수 있다. 규합총서는 저술 연대로 볼 때 실학사상이 등장, 확대되어가는 시점이고, 더우기 저자의 시택인 서씨택이 실학의 대가였던 박제가 이덕무 등과 학문적인 친교를 이룬 바를 볼 때 조선 초기에 비하여 실학사상이

강조된 후기에 이르러서는 생활에서의 실용성과 실천성을 강조 하였던 때다. 이에 따라 조선 초기 까지만해도 여성의 활동을 가정내로만 제한했던 것이 여성도 가계가 곤궁하면 나아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이덕무, 사소절, 부의) 정도로 생활의식이 변화되어 가는 시점이었음을 참고하자면 미약하나마 규합총서에 여성으로 할 수 있는 주택관리 내용이 삽입된 것은 실학에 영향을 받은 저자의 의식과 사회적인 배경 및 그 시대의 여성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IV. 결 론

본 고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에 빙허각 이씨가 저술한 규합총서의 내용을 주생활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논의해 보았다. 규합총서는 조선시대 후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가정생활의 의식주생활관리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생활사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서적이다. 규합총서의 주택관리 내용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릇관리나 불관리 주택관리에는 자연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저자가 직접 실행해 보고 유용한 바를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택관리내용은 여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산림경제나 증보산림경제 임원십육지 등의 실학서적을 주로 인용 서술함으로써 실학의 영향을 받은 실천적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합총서의 주택관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날 일깨워볼 만한 주택관리의식을 제시하자면 주택관리에서도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지키려 했던 점과 실용성, 실천성을 강조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규합총서가 쓰여진지는 이미 약

200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지 않고 전해지는 바는 과거 전통사회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의 뜻 이외에도 고찰한 바와 같이 귀중한 축적된 선조들의 삶의 양식과 가치의식이 스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미흡한 점이 많으나 앞으로 생활사적 측면에서의 주택관리를 살펴 볼 수 있는 지속적인 문헌 및 사례연구가 이루어져 과거 전통사회의 생활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뜻을 고양해야 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1) 박경자(1972). 규합총서해설. 성신여자대학교 논문집.
- 2) 빙허각 이씨(1984). 규합총서. 정양완 역, 보진재.
- 3) 손직수(1982). 조선시대 여성교육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4) 신경주·안옥희(1995). 주거관리학. 학지사.
- 5) 신영훈(1982).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 6) 심화진(1994). 규합총서에 나타난 봉임측 내용분석. 생활문화연구 제 8집,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소.
- 7) 윤복자·지 순(1992). 기초주거학. 신광출판사.
- 8) 윤장섭(1988). 한국건축사. 동명사.
- 9) 이경희 외 3인(1993). 주거학 개설. 문운당.
- 10) 이길표·주영애(1995).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신광출판사.
- 11) 이덕무. 사소절
- 12) 이성우(1991).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 13) 이영미(1989).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의 현대적 재조명.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홍형옥(1992). 한국주거사. 대우학술총서, 민음사.